

## 본당 소식

### ♣ 말씀 KEY WORD

- '듣다'(아쿠오) : '듣다'라는 동사는 주로 하느님의 뜻이나 율법, 그리고 가르침에 열린 마음을 가리킬 때 등장합니다. 복음서들은 경청하지 않는 마음의 완고함에 대해 예수님의 비판적 꾸짖음을 자주 언급하지요. 우리 신앙인의 회개는 자선, 기도, 단식과 같은 개인적 행위가 아니라 다른 이를 바라보는 나의 열린 마음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 ♣ 추석 합동 위령미사 안내

- 다음 주일(10월 5일) 미사는 추석 합동 위령미사로 봉헌합니다.
- 미사 중에 분향 및 연도 있습니다.

### ♣ 2025년 이탈리아 한인체육대회

- 10월 4일(토) 10:00 ~ 18:00
- @ Sport Village Assago(Via Giuseppe Di Vittorio, scn 20090 Assago)

### ♣ 모임 / 회의

- 청년구역: 10월 5일 미사 후, 오라토리오

### ♣ 지난주일 우리의 정성

- 봉헌금 300.07€ • 교무금 700.00€

### 전례 성가

- 입당 : 69 (지극히 거룩한 성전)
- 봉헌 : 221 (받아주소서)
- 성체 : 496 (주님은 우리 사랑하셨네)  
498 (예수여 기리리다)
- 파견 : 286 (순교자의 믿음)

### 전례 봉사

이번 주일(9월 21일)	다음 주일(10월 5일)
1독서: 박건욱 레오	1독서:
2독서: 이소현 엠마	2독서:
복 사: 변가인 헬레나, 안태리 소화데레사	복 사:

## 밀라노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CHIESA SANTI MARTIRI COREANI Oratorio di San Rocco al Gentilino (Piazza T. Lucrezio Caro 7, Milano)

본당신부 : 조병진 베니노

- 사목회장: 변의용 베네딕토 ·부회장: 정상현 안토니오 ·총무: 박건욱 레오
- 전례위원장: 이민찬 비오 ·성모회장: 김효경 릿타 ·외교위원장: 김산영 올리아
- 청소년위원장: 이승준 다니엘 ·청년구역장: 진하림 글라라
- 1구역장: 유정연 릿타 ·2구역장: 허희숙 마리아 ·3구역장: 강한 프란치스코

2025년 9월 28일

(녹) 연중 제26주일(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 미사 전례

#### 본기도

전능하신 하느님, 크신 자비와 용서를 베푸시고 끊임없이 은총을 내려 주시어 약속하신 그곳으로 저희가 달려가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화답송



- 주님은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고, 억눌린 이에게 권리를 찾아 주시며, 굶주린 이에게 먹을 것을 주시네. 주님은 잡힌 이를 풀어 주시네. ◎
- 주님은 눈먼 이를 보게 하시며, 주님은 꺾인 이를 일으켜 세우시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주님은 이방인을 보살피시네. ◎
- 주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나, 악인의 길은 꺾어 버리시네. 주님은 영원히 다스리신다. 시온아, 네 하느님이 대대로 다스리신다. ◎

#### 제1독서 (아모스 예언서 6,1ㄱ-4-7)

전능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 1 “불행하여라, 시온에서 걱정 없이 사는 자들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 놓고 사는 자들!
- 4 그들은 상아 침상 위에 자리 잡고 안락의자에 비스듬히 누워 양 떼에서 고른 어린양을 잡아먹고 우리에서 가려낸 송아지를 잡아먹는다.
- 5 수금 소리에 따라 되잡은 노래를 불러 대고
- 다윗이나 된 듯이 악기들을 만들어 낸다.
- 6 대접으로 포도주를 퍼마시고 최고급 향유를 몸에 바르면서도

요셉 집안이 망하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7 그러므로 이제 그들이 맨 먼저 사로잡혀 끌려가리니  
비스듬히 누운 자들의 흥청거림도 끝장나고 말리라.”

###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티모테오 1서 6,11ㄱ-16)

11 하느님의 사람이여, 의로움과 신심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십시오.

12 믿음을 위하여 훌륭히 싸워 영원한 생명을 차지하십시오.

그대는 많은 증인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을 때에  
영원한 생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13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 그리고 본시오 빌라도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그대에게 지시합니다.

1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 없고 나무랄 데 없이 계명을 지키십시오.

15 제때에 그 일을 이루실 분은 복되시며

한 분뿐이신 통치자 임금들의 임금이시며 주님들의 주님이신 분

16 홀로 불사불멸하시며 다가갈 수 없는 빛 속에 사시는 분

어떠한 인간도 뵈 일이 없고 뵈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영예와 영원한 권능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예수 그리스도는 부유하시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어 우리도 그 가난  
으로 부유해지게 하셨네.◎

### 복음 (루카 9,23-26)

그때에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에게 말씀하셨다.

19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20 그의 집 대문 앞에는 라자로라는 가난한 이가 종기투성이 몸으로 누워 있었다.

21 그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개들까지 와서 그의 종기를 핥곤 하였다.

22 그러다 그 가난한 이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 곁으로 데려갔다.

부자도 죽어 묻혔다.

23 부자가 저승에서 고통을 받으며 눈을 드니,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곁에 있는 라자로가 보였다.

24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였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자로를 보내시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제 혀를 식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 불길 속에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25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애야, 너는 살아 있는 동안에 좋은 것들을 받았고

라자로도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여라.

그래서 그는 이제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초를 겪는 것이다.

26 게다가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가로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 쪽으로 건너가려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 쪽으로 건너오려 해도 올 수 없다.’

27 부자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제발 라자로를 제 아버지 집으로 보내 주십

시오. 28 저에게 다섯 형제가 있는데, 라자로가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29 아브라함이,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하고 대답하자,

30 부자가 다시 ‘안 됩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가야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하였다.

31 그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일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 보편 지향 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참목자이신 주님, 주님의 교회를 굽어살피시어, 하느님 계획에 응답하는 미래의 건설  
에 이주민과 난민과도 함께하며 주님 안에서 한 형제로 살아가게 하소서.

2.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의로우신 주님, 정치인들을 주님의 사랑과 정의로 이끌어 주시어, 가난하고 힘없는 이  
들을 먼저 살피며 모든 이에게 이로운 정책을 마련하고 올바르게 실현하게 하소서.

3.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 낫기 힘든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을 굽어보시어, 몸  
소 위로하시고, 치유의 희망을 언제까지나 잃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4. 지역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친교의 주님, 저희 지역 사회를 굽어살피시어, 지역 주민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  
가정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안정된 생활을 하는 데 힘이 되게 하소서.

### 영성체 후 기도

주님, 천상 신비로 저희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어

저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하며 그 수난에 참여하고

그 영광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